**허술해도 위대합니다**

<마 18:21-35>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외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의 목사임직 절차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모로 좀 어색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전에 ‘전도사’라고 되어 있던 곳을 ‘목사’로 바꾸는데, 부담감이 갑자기 확 밀려오더라구요. 사실 호칭만 목사로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면 부디 제가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허술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주신 것처럼, 많이 이해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요즘 이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사건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체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안달하기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과 ‘이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이 이후 해야 할 일’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걸 믿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모범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유한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사회는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성을 억지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약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신봉자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개조하려 하기보다, 사회를 그 기반 위에서 돌리고자 합니다. 인간과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산주의의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은 그 이기심에 기반한 체제가 인간성을 심각하게 병들이고 있다는 것을 외면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할 일은 세상 끝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사회의 죄악된 현실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역시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은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고상한 얘기는 다 하고 다니는데 정작 그 삶을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체코사회에서 교회는 이미 주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여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또한 되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비전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유대 공동체를 외부와 구별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율법의 본정신을 놓치고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가치있고 생명있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넉넉히 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모순된 듯 보이는 두 가지 권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진정 자유인이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이 참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3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8-30).

여러분, 제가 지금 검은 가운을 입고 목에는 스톨을 두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입는 이 가운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톨은 주님의 멍에를 멘다는 뜻이 있다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 어찌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제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 쉼과 자유를 누리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쉼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할 때, 오히려 그 속에 참 자유가 있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역설을 실제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세상과 구별짓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기적들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우리 안에서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로운 기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허술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허술함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허술함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허술함이 오히려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려 노력할 때, 그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허술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족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를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저런 일로 실족했다고 말하고, 그가 용서를 빌 기회를 주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너는 잃을 뻔했던 네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을 확증하고, 그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다시 주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 사안을 교회에 보고하고,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에 대해 책임이 없다.

자, 이것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내가 관계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그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는 말씀은, 끝없이 용서해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곱 번씩, 아니 심지어 490번씩이나 용서해야 할 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경우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도, 때로는 가르치고 타이르고 혹은 간곡히 부탁해도, 전혀 삶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 그리고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한두 번은 용서해줄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반복되면 짜증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전에 누군가로부터 그처럼 엄청난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나도 동일하게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좀더 수월할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합니다. 사람들이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임금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게 조금만 참아 주시면 머잖아 다 갚겠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따라서 만 달란트의 빚은 당시 노동자가 무려 16만 4천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이 빚을 갚겠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주인도 압니다.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를 그냥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를 입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일 농촌임금을 5만원으로 환산할 때, 백 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100일 품삯, 즉 500만원 정도의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노력하면 갚지 못할 정도의 빚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종은, 그에 60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빚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곧 갚겠네.” 그러자 그는 매정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자네가 어느 세월에 일해서 그 빚을 갚아.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얼른 내 돈부터 갚게.” 그리고는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노하여 그가 자기 동료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의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빚진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용서의 복음은 값싼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가짜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유괴범에 의해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진 여주인공 신애는, 이후 교회에 다니며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서의 뜻을 밝히려고 간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평온한 얼굴의 살인자를 만나고,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하늘에 대고 외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구한테 용서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영화가 기독교를 부정하는 영화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나타난 값싼 복음을 매섭게 꼬집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한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죄고백과 용서가 현실화될 때, 용서의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 체험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동안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의 순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동료의 적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결과, 그 만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다시 추궁당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추궁하셔도 우리에겐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의 실천 말고 따로 또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안에서 먼저 용서를 실천하고 이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 아닌가? 아직도 이 죄 사함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사역이 남아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만 달란트의 손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그 동일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성령과 함께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그의 죄짐을 함께 지며,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써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 15:7).

이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먼저 은혜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와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져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용서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죄를 하나 하나 처리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복음은 이렇게 용서의 삶을 통해 전파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쿨한 것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좀 고상해 보이고 갈등의 소지가 적은 집단에 속하기를 선호합니다. 그 안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손쉽게 그곳을 나와 다른 집단으로 옮겨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교회도 그런 곳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 하고, 귀찮은 문제가 생기면 미련없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받으시지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으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결속과 헌신이 없이, 절대로 신앙은 영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헐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따르려는 노력 없이, 결코 복음은 삶 속에 육화되지 않고, 세상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집단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문제를 복음의 빛 속에서 다루는 가운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장소를 어지럽히고 정신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해결해야 할 귀찮은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 뒷치닥꺼리를 해야 하지요. 만일 교회가 이 귀찮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 어린아이나 초신자, 혹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면, 그 교회는 분명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며, 바로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며 섬기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수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자신의 허술함을 감추기 위해 늘 긴장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살아 약동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허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이를 위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가운데,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2차대전 당시 지옥의 수용소로 악명높았던 곳들 중에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유태인, 집시, 그리고 나치 저항세력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2차대전 기간 중 약 4만 명이 거기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 처형장의 한 어린이 시체 옆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용서의 제물”입니다.

주님,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기억해 주소서.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들, 곧

저희들의 우정, 충성심, 겸손,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 마음의 위대함도

기억해 주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 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용서가 필요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하며,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제 아내에게 있는 버릇 중 하나는 밖에 외출했다 돌아오면 꼭 가방을 식탁의자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가방을 치워야 하고, 때로는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 때문에 의자가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몇 차례 얘기했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고, 심지어 간곡히 부탁한 적도 있지만, 그 습관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저에게 몇 차례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바꾸려해도 잘 안 바뀝니다. 차라리 나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자매의 연약하고 허술한 모습을 지적하고 고치려하기보다,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어떨까요? 만일 그로 인해 내가 실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때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 마음을 그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건 어떨까요?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행히 그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를 실천하십시다. 얼핏보면 이 용서의 삶은 내가 손해보는 길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길이며, 또한 어쩌면 내 형제 자매를 복음 안에서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길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약동하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허술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생각하면 할수록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은 참으로 옳은 길이요, 참으로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의 자비와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허술한 모습 속에**

**복음의 위대함을 간직한**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한국교회와 체코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